

제주도에도 LNG 공급

- 해저연계선 증설 및 LNG발전 병행 추진으로 정전걱정 사라진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의 전력공급 방안으로 2011년까지 해저연계선을 추가 증설하고, 이후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여, 제주도에도 LNG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로써 해저연계선의 고장으로 잦은 정전사고*를 초래했던 제주도의 전력공급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연계선 고장에 따른 제주정전('97~현재) : 총 31건 (제주도 전역정전 4회)이며 또한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LNG 공급이 제외되었던 제주도에도 드디어 LNG 도시가스가 공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도 전력공급 대안으로 세가지 안을 마련하여 대안별로 전력공급 안정성과 경제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저연계선 증설방안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비용이 다소 높은 병행추진안과의 소비비용 차이는 4% 내외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공급안정성 분석결과, 해저연계선 증설방안, LNG 발전안은 현재의 공급신뢰도 수준으로 해저연계선 2회선 연계고장 등의 경우에는 정전이 불가피한 공급방안이었다.

병행추진안은 금년 4월 사고와 같은 해저연계선 2회선 연계고장 등의 열악한 경우에도 정전을 예방할 수 있는 육지 수준의 높은 공급신뢰도를 지닌 방안이었다.

또한, 병행 추진안의 경우에도 전기사업자 등의 제주도에서의 손실규모는 현재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유, 경유 등 고비용 위주의 발전체제로 인해 현재 한전은 제주도에서 연간 1,600억원 규모('05년)의 손실을 입고 있다.

병행 추진시에는 연계선 증설을 통한 육지전력 구입확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LNG 발전으로 인해 사업자의 손실규모는

다소 줄어든 전망이다.(연간 1,500억원 수준)이고, 다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도 차원의 LNG 발전소 및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도의회 의결)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는 LNG 도시가스 공급을 도 차원의 숙원사업으로 삼고 제주도와 다수의 사회단체 명의로 LNG 발전과 도시가스 공급을 건의하여 왔다.

한편, 연구용역에서는 LPG에 비해 저렴한 LNG 공급시 제주도민은 LPG 난방에 비해 30년간 총 900억원 이상의 난방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 협력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상생협력 강화

- 국민은행과 KB Partnership Loan 및 KB 기업제휴카드 지원협약 체결 -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는 2006년 8월 9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국민은행과 함께 한전과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 및 전기공사업체에 대해 국민은행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한전은 최적의 물자 조달 및 안정적인 시공으로 상생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금융지원 내용은 「KB Partnership Loan」과 「KB기업제휴카드」이며, 특히 한전의 협력업체지원시스템(PRM)에 가입한 협력회사는 추가로 우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KB Partnership Loan은 협력업체에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하는 대출로, 동 대출을 지원받는 회사는 각종 금리 및 수수료 우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KB기업제휴카드를 통해 기존 기업카드보다 더 다양한 우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아 추가적인 금융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이번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의 「KB Partnership Loan」 및 「KB기업제휴카드」 지원협약은 업종대표 선도기업의 적극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한전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촉진 (Purchasing Promotion) 프로그램,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위한 마케팅촉진(Marketing Promotion) 프로그램, 『성과 공유제』 확대를 위한 상생 파트너쉽 촉진(Partnership Promotion) 프로그램등 3대 촉진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지원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